

## 경제

# 지역 근로자들 '설이 춤다'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체불·감원설에 '뒤승승'

대부분 맨손 귀향…연휴 쉬는 걸로 만족해야

협상 마친 기아차만 상여금·귀향비까지 쟁겨

이번 설 연휴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예전에 비해 대체로 추운 설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급여와 1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27일 지급해야 할 1월 급여도 확보하지 못해 체불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감원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아 명

절 분위기는 커녕 생계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급여 체불 여파로 그동안 납부해오던 보험을 중도해지 하는 등 하리파 조이기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여수공장도 특별 보너스

'설 연휴 다 못 쉬는' 中企 근로자 많다

평균 2.9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이번 설 연휴 평균 휴무일은 사흘이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커리는 최근 중소기업 직장인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이번 설 연휴에 실제로 쉬는 날은 평균 2.9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정 공휴일인 '사흘을 모두 쉰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를(10.3%), 설

당일만(5.9%), 안 쉰다(6.2%) 등 연휴 전체를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22.4%에 이르렀다.

'나흘을 쉰다'는 13.9%, '닷새 이상 쉰다'는 7.8%로 전체적으로 법정 공휴일인 사흘을 다 쉬지 못하는 비율보다 약간 낮았다. 이들이 고향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2월12일 금요일이 48.5%로 대부분이고, 고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설 당일인 2월 14일 일요일 오후(28.3%)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전망치인 -3.5%를 크게 웃든 것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낸 국가는 한국을 포함 호주, 폴란드 등 3개국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9년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는 1998년의 -5.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이다.

/연합뉴스

작년 0.2% 성장

11년만에 최저치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성장을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성장을

## ■ 광주 전남 주요기업 설휴무 및 상여금 지급계획

회사	휴무일	상여금
금호타이어	13~16일(예정)	12·1월 상여금 체불 계획 없음
포스코 광양제철소	13~15일	
대우트랙토로닉스	13~15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13~15일	
기아차	13~17일	통상급의 50% 귀향비 80만원 사이버머니 15만 포인트 임월 격려금 140만원
현대삼호중공업	13~17일	귀향비 50만원
삼성광주전자	13~15일	명절 상여금 100%
보해양조	13~15일	"

지급이나 공식 휴일 외에 휴무일을 늘리지 않았다. 다만 다음날인 16일을 '권장 휴가일'로 정해 개인 사정에 따라 쉴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공식 설 연휴인 2월13~15일에만 쉬고 별다른 명절 선물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우트랙토로닉스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설 연휴 3일간만 쉬다. 특별 상여금 지급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여수공장도 특별 보너스

며니 15만 포인트 등을 설을 앞두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기아차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설 상여금과 별도로 격려금 1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도 5일간(2월13~17일) 설 휴무에 들어가고, 지난해와 같은 50만원의 귀향비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광주전자와 보해양조는 설 연휴를 늘리자는 않았지만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임태희(맨 오른쪽) 노동부장관이 행정인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우건설 투자자 2조2천억 증자

### 가능성 낮고 구조조정 차질 우려

#### 금호 그룹측, 경영권 인수 제안 부정적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재

무적 투자자(FI)들이 제시한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호아시아나는 26일 '대우건설 FI 제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실행 가능성성이 분명치 않고 여려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FI들은 지난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2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금호산업에 투입해 지분 50.1%를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그룹이 정상화하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전에 보유했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한 것과 관련,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는 "2조2천억원의 신규증자 계획에는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신규 유상증자가 완료되기 전 회사가 당면하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또 "FI가 설계하는 새로운 금호산업은 4조4천억원의 자본금과 2조5천억원의 매출액을 가진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실행 가능성성이 대한 불투명성 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FI 제안을 수용할 경우, 기존 채권단의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전에 보

유했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석

유화학에 매각한 것과 관련,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는 "2009년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는 1998년의 -5.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성장을

## 광주 온 임태희 노동장관

"기업-학교-지자체 간 매칭(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책을 꾸고 유통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복동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후기를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듯이 취업도 때를 놓치면 평생 백수로 지내게 된다'면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정부 정책 1순위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센터가 마련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정인턴 채용 박람회, 취업클리닉 등 다양한 구직 프

로그램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취프로그램에 참여한 하송호(5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임 장관에게 "고령자도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능력 저점장을 지녔다는 하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4~5번 구직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며 "일만 할 수 있으면 월급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자인 박나리(25)씨는 "센터가 지원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구인 정보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센터

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한 윤예진(28)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좋은 취업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취업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가고용 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쓰고 있다"며 "근원적 해결과 단기 처방에 적절히 조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민·정이 협의해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지역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

### 1월 소비심리지수 112

주요 CSI가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6개월 전과 비교한 1월의 현재생활형편C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97로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밟았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예상은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10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다.

앞으로 6개월의 가계수입전망CSI는 102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지출전망CSI(112→106)도 6포인트 하락해 2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그러나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1.4포인트, 12월 3포인트 하락하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도 향후경기전망CSI를 제외한

현재경기판단CSI(105→99)은 전

달보다 6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CSI는 전달과 같은 113으로 기준치를 크게 올돌아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37.34 (-32.6)
코스닥지수	522.07 (-12.15)
금리 (국고채 3년)	4.21% (-0.05)
원·달러 환율	1,163.30원 (+1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작년 0.2% 성장

11년만에 최저치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성장을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성장을

상무랜드공인증개사

(FAX)383-5221 휴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부동)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충별 일대 3.3㎡당 권리금 1,800만원

금액기관 외부 등

2층~4층 400~500만원

평원, 학원, 시무실 등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빌려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지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도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